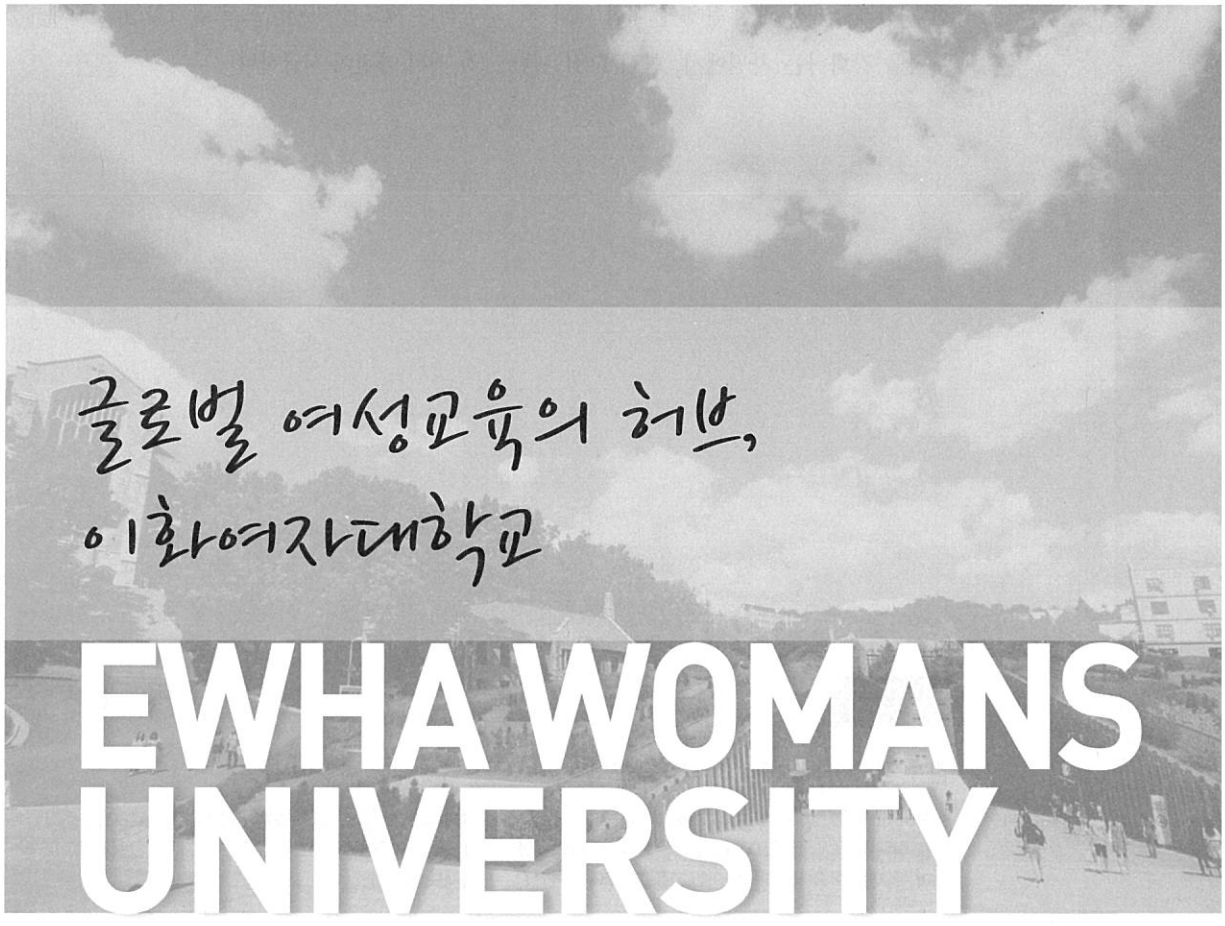
변화하는
우리대학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이화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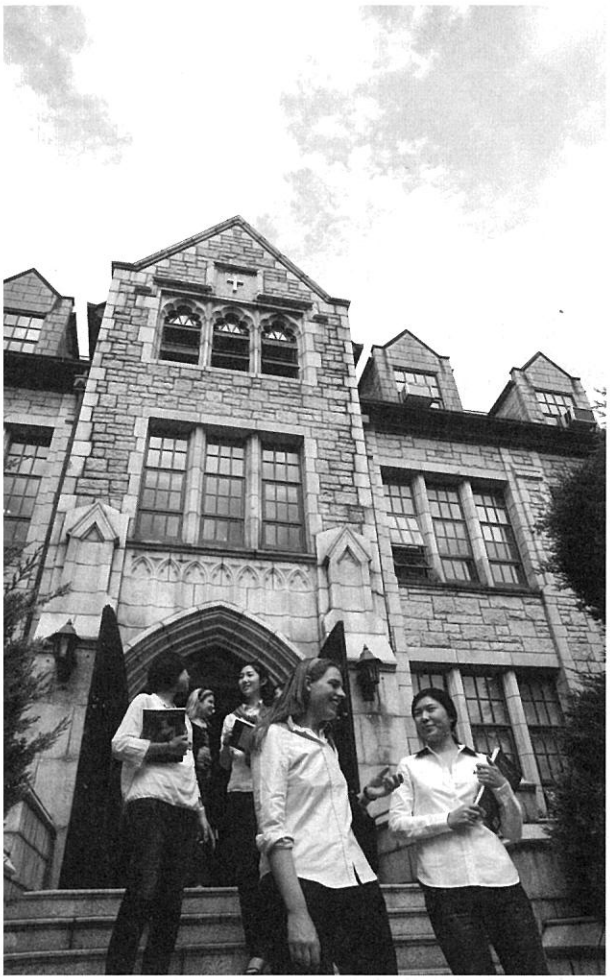
대한민국 여성리더의 산실이자 세계 최대의 여자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창립 이래 의학, 물리학, 화학은 물론 법학, 예술, 문학,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여성 1호를 배출하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어 왔다. 이화가 배출한 19만의 동문들은 한국 여성을 위한 가능성의 문을 열고 역사의 고비와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오늘날 여자대학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성장과 발전을 일구어왔다. 이제 이화는 한국 사회 속에서 쌓아온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한발 더 나아가 한국에서의 성과를 세계와 나누는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넘어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 이화'

2010년 이화의 제14대 총장으로 부임한 김선욱 총장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말을 인용해 'Non nobis solum', 곧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닌' 이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화의 역사가 만들어온 선한 발자취를 계승하되 이화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소명을 국제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화는 가장 이화다운 인재를 양성하고, 이화만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며, 이화의 성과를 세계와 소통하고 나누어 갈 내일의 청사진으로서 6대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화소식 99호 이화이슈표 삽입 예정)

가장 이화다운 인재를 양성하고, 이화만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며, 이화의 성과를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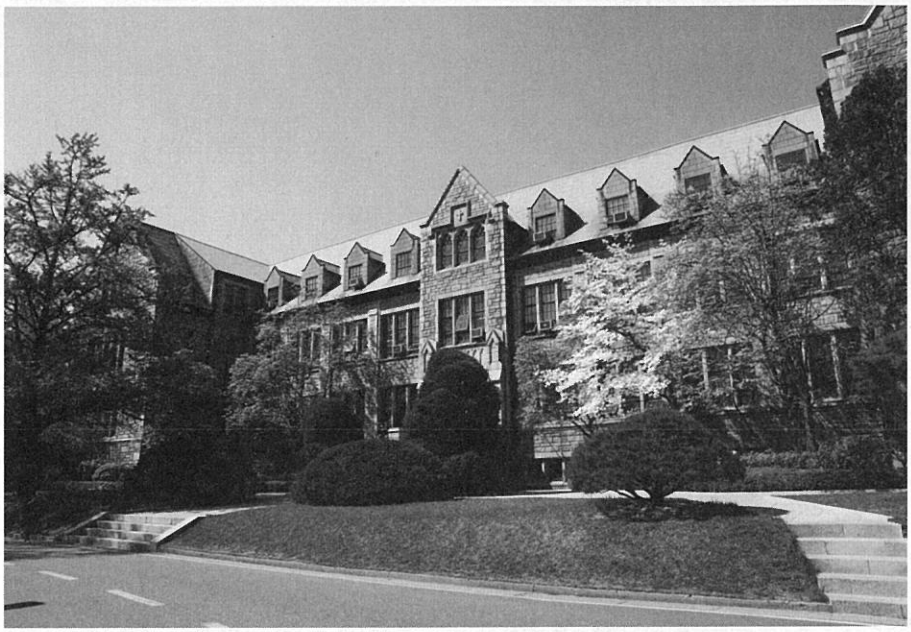
계와 소통하고 나누어 갈 내일을 위한 6대 발전전략을 통해 이화가 그리는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학부교육혁신**을 통해 이화정신을 실천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및 산학 역량을 강화**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새로운 연구와 산학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화브랜드를 세계화하는 ▶**국제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책무 강화**를 통해 이화의 교육역량을 세계에 환원해 나갈 것이다. ▶**지식 정보화 네트워킹**으로 세계 어디서나 이화가 가진 무형의 자산을 공유하고 ▶**기반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화는 한국이라는 국가적 경계를 넘어 세계 여성과 글로벌 커뮤니티를 향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국내 최초 레지덴셜 칼리지, 이화 RC

미래전략을 통한 이화여대의 가장 큰 변화는 학부교육혁신에서 출발한다. 이화는 2015년부터 '1학년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다. '이화 RC(레지덴셜 칼리지)'를 통해 신입생들은 문화와 학습, 생활이 어우러지는 최첨단 생활공간인 RC 전용 기숙사에서 선배는 물론 교수진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문과 인생, 미래에 대해 토론하며 인성교육과 사회교육, 글로벌리더십교육을 함께 배운다. '이화 RC'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지덴셜 칼리지로 시작한 '이화학당'의 창립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 교육생활 프로그램으로, 이화여대는 여성 인재양성 분야에서 독보적인 이화만의 노하우를 집약한 신개념 레지덴셜 칼리지를 세워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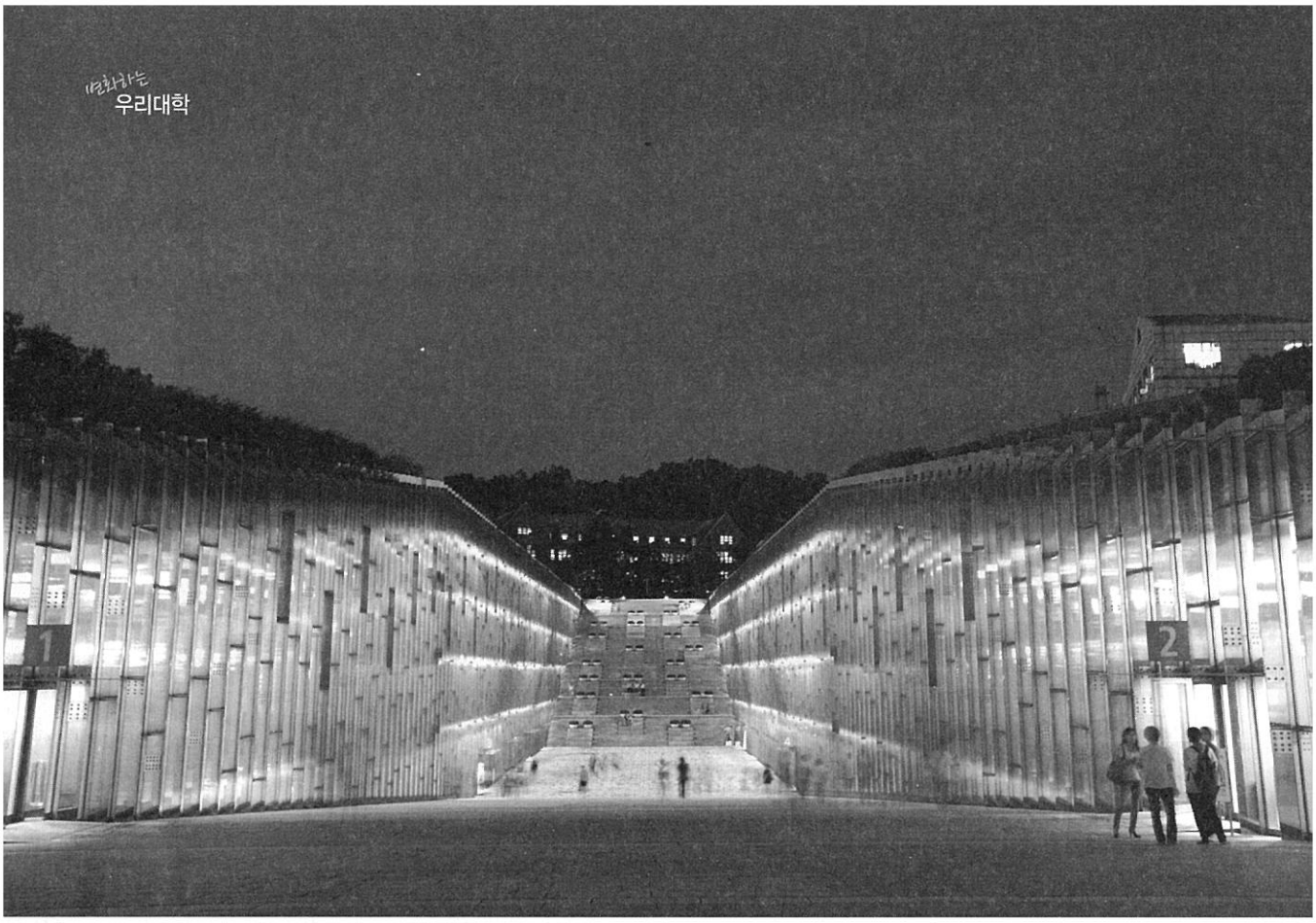
'이화 RC'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정착하여 성과를 나타



내고 있는 해외 명문대학의 레지덴셜 칼리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특히 재학생이 꿈꾸는 RC로 만들어가기 위해 재학생 50명 규모의 'RC 글로벌 학생 기획단'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겨울방학 중 영국 옥스퍼드대와 캠브리지대, 미국의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을 방문하는 현장 체험 탐사를 떠날 예정이다. 학생들이 직접 현장체험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화만의 교육생활 공동체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화 RC'는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서 이화가 담당해 나가야 할 세계 속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 나갈 이화형 인재가 준비되는 인큐베이터이자 미래시대를 선도할 여성리더의 소양과 자질이 계발되는 진정한 여성리더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

과학이화의 비전과 성과, 연구 및 산학협력 강화

미래 전략의 가장 큰 성과는 과학 분야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이화여대는 과학이화의 비전 하에 이미 최첨단 종합과학관 D동을 건립하고 세계 석학 수준의 교수진을 과감히 영입하는 등 과학 분야 여성시대를 준비해왔다. 지난 5월에는 최첨단 산학협력관이 착공에 들어갔다. 나노 · 바이오 · 의학융 · 복합 기초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산학협력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5,785.22㎡ 규모로 건립되어 세계적인 화학기업 솔베이와 함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의



장이자 미래과학을 선도할 과학인재 육성의 터전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화여대는 지난 2011년 5월 솔베이와 함께 국내 대학 최초로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를 캠퍼스 내에 유치하고, 총 2,1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학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초대형 국책과제에도 선정됐다. 2012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추진하는 '기초과학연구단(IBS연구단)을 유치한 것이다. IBS연구단 사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초빙해 기초과학 분야의 창조적 지식과 미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화여대는 10대 1의 경쟁률 속에서 과학기술대학이 아닌 일반종합대학으로 선정되는 파격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이화여대 IBS연구단은 향후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 최대 1,0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3년간 총 1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는 '글로벌 톱5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오랫동안 쌓아온 우수한 인문학적 전통 위에 과학 이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유수 대학과 연구진의 공동 연구 제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대학평가에서는 수학과 물리학 전공이 단독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세계 속 이화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나눔의 글로벌'

이화는 여성교육 분야 노하우를 세계와 나누는 '나눔의 글로벌'을 지향한다. 이미 2006년 이화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개발도상국 여성인재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비롯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해 여성리더로 길러내는 'EGPP(이화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을 시작해 34개국 140명의 여성인재를 육성했다. 여기에 더해 개발도상국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대학원 과정인 '이화-KOCIA 석사과정'을 통해 36개국 142명의 여성전문가들을 배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공공부문 여성활동가를 위한 EGEP(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로써 사실상 학·석·박사 과정은 물론 여성공무원과 공공영역에 이르는 글로벌 여성 인재양성 과정을 구성했다. 우수한 여성인재를 선발해 장학지원을 통해 교육하며 각국에서 여성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이화의 글로벌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화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현장에서 활약하는 여성리더들을 중심으로 이화 동창회가 개최될 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화의 자산을 세계와 공유하는 지식 정보화 네트워킹

공간 개념을 넘어서는 가상 공간의 캠퍼스 '버추얼 이화(Virtual Ewha)'가 현실화 단계에 있다. 이화가 가진 무형의 자산을 세계 공동체와 공유하기 위한 '버추얼 이화'는 가상공간에 이화 캠퍼스를 만들고 강의 정보는 물론 연구 정보, 각종 학술 행사 및 특강, 대학 정보 등을 공개하고 전파함으로써 지식 나눔의 국제적 소명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 환경도 조성됐다. 디지털 기반의 첨단강의실 인프라를 갖추고, 아이패드(iPad)를 활용한 강의를 도입하고,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에듀(YouTube Edu)'에 이화여자대학교 브랜드 사이트를 구축했으며, '페이스북(Facebook)'에 학교그룹을 생성하여 활용하는 등 변화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형 대학 캠퍼스 구축하는 기반시스템 선진화

세계적인 수준에 맞춘 대학경영시스템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학사와 행정, 연구와 산학을 통합하는 IT 혁신 시스템인 '유레카(EUREKA) 프로젝트'가 지난 11월 최종 마무리 되었으며, 기반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캠퍼스마스터플랜도 진행 중에 있다. 이화여대는 2007년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캠퍼스인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를 건립한 바 있다. ECC는 최첨단 친환경 건물이자 교육과 생활, 휴식과 문화가 접목된 캠퍼스 생활의 센터로서 21세기형 캠퍼스의 모델을 제시하며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연구공간을 지향해온 이화여대는 561,983㎡(17만 평) 규모의 캠퍼스를 기능과 특성에 따른 영역별 개발을 함으로써 기능성과 심미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열린 캠퍼스이자 이화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아름다운 캠퍼스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창립 이래 변화와 도전의 역사를 써내려온 이화여대는 126년의 역사를 통해 시대를 가르고 국경을 지나 이제 한국 여성을 넘어 세계 여성과 글로벌 커뮤니티를 향해 뻗어가고 있다. 여성의 인간화를 위해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거침없이 도전하며 모두를 위한 진정한 변화를 성취한 이화는 이제 여성의 가치를 계발해 세계 사회에 환원하는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서 새로운 대학의 역할을 제시하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해 나아갈 것이다.